

## 세상을 바꾸는 첫 발걸음

구 설영

인도나 태국에서는 1톤이 넘는 커다란 코끼리들을 가느다란 쇠사슬로 묶어 조그마한 기둥에 묶어 키우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조금만 힘을 써도 금방 뿔뿔해나갈 것 같은 기둥에 코끼리가 꼼짝없이 묶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육사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자라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벗어날 수 없는 숙명'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너끈히 그 쇠사슬을 끊어낼 힘을 지녔음에도 코끼리는 자신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덴마크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자전거들이 한가득 세워져 있다. 도대체 자전거가 왜 여기에 놓여 있는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 자전거는 다름 아닌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북유럽과 우리의 현실은 역시나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체념을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가느다란 쇠사슬과 기둥에 묶여 꼼짝을 못하는 코끼리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청렴의 일차적 의미는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물적 제공을 받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승열 씨의 글은 그간 우리 사회의 봐주기 관행과 뇌물 제공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었던가를 보여준다.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끌려온 친구를 위해 처음에는 음료수 박스를, 그다음에는 돈 봉투를, 경찰관이 끝내 받지 않자 외려 봉투를 하나 더 가져오는 한 남성의 이야기는 차라리 하나의 촌극에 가까울 정도이다. 글쓴이는 공직자에게는 모욕과도 같았을 남성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는 과거의 기억이 크게 작용한다. (중략)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시각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직사회에 한 방울의 검정물이 라도 튀면 이를 희석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재차 명심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청렴은 단순히 부정 청탁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자신의 직분에 태만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정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 의미의 청렴이라 하겠다.

승객들로 만원인 추석 열차 내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할아버지를 위해 심

사속고하여 대안을 마련해주는 김성주 씨의 사연은 그런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그렇다면 청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면화되는 것일까. 일단 어릴 때부터 청렴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형성시켜주고 그것을 체화하도록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어렸을 적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스승의 날에 존경하는 선생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지 못해 잔뜩 위축되었던 한 어린이. 그 안타까움을 일기장에 빼곡히 적고 선생님께 미래에 드리고 싶은 선물을 그림 쿠폰으로 그려 넣은 어린이의 마음을 선생님은 따뜻하게 도닥여주시고 다른 친구들이 가져왔던 값진 선물들도 모두 돌려보냈음을 이야기해주신다. 위축되었던 아이의 마음은 환하게 펴지고, 아이는 자라 선생님께 받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스승이 된다. 유철민 씨의 이러한 사연은 청렴이 단순히 사람 사이의 주고받음을 단절시키는 냉혹함만을 지닌 것이 아니요, 오히려 물질이라는 걸치레의 허물을 벗고 정직하게 마음과 마음을 만나도록 이어주는 다리와의 같은 것임을 보여주었다.

어릴 적에 주로 부모님과 스승에게서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직장인이 되어서는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 주변 동료들이 바로 그러한 전범이 되어주곤 한다. 꼼꼼한 사전 점검을 통해 고장 나고 파손된 소방 시설을 보수하고 위기에 대응하게 해주었던 선배 소방관의 지침은 얼마 뒤 일어난 화재에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경험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은 김봉수 씨의 이야기는 청렴한 이들의 모습이 주변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서대현 씨의 사연은 존경하던 선배가 퇴임 후 어느 날 대리청탁을 해오게 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반면교사로서의 동료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청렴을 내면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당사자의 체험과 그 속에서 고민을 해결해나가며 얻어낸 자각일 것이다. 승진을 위해 어렵사리 본인의 신념을 어겨가며 높은 직급의 상사에게 청탁을 하려 했으나, 그를 만나러 가던 길에 벚꽃놀이를 나온 상춘객들의 행렬에 자가용이 갇혀 우왕좌왕하다 결국 무리한 끼어들기 운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탄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되었다는 조정임 씨의 사연은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직장 내에서, 도로 위에서, 나만 좀 더 빨리 가보겠다고 편법과 꼼수를 사용하는 일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조정임씨는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돌이켜보게 된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본래부터 양심이라는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양심의 눈을 피해 보다 편한 길을 걷고자 하는 욕심 역시 존재한다. 일터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로에 선 자신의 마음 속 번민을 경험하고 비로소 이념으로

서가 아닌, 구체적 필요로서의 청렴을 내면화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솔하였고 어떠한 교조적 연설보다도 절실하고 친근하게 스며드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렴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 우선, 외부에서 투입해오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자긍심을 얻을 수 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히 유지하는 것을 넘어선 적극적 자기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관행과 인습이라는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 자기대로의 삶의 궤적을 곳곳이 그려나가는 태도가 이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김관주 씨의 글은 일상이라는 흔한 얼굴로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이 솔직담백하게 그려져 있어서 웃음을 자아냈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채로 몸보신을 위해 그것을 포획하고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별 거리낌이 없었던 기성세대와 그에 반하여 사명감으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국립공원 직원과의 좌충우돌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던 글이었다.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신념과 가까운 혈족이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충돌하였을 때, 그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또한 청렴은 부정한 결탁의 고리로 인해 사회 곳곳에 텅 빈 구멍들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어준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급식 반찬으로 알차게 쓰여야 할 식재료가 원장의 사적인 용도로 전용되고 있음을 용기 있게 고발한 유은경 씨의 사연이나, 사소한 가스 누설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배후를 면밀히 조사하여 원인을 찾아내 결국 전국에 보급된 불량 가스관을 모두 수거하기에 이르렀다는 이경미 씨의 사연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이렇게 개인의 내면과 사회 분위기 전반에 청렴 문화가 자리 잡게 될 때 사람과 사람 간에도 두터운 믿음이 쌓이게 된다. 친구에게 청탁조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김려중 씨의 이야기와, 상했는지 모를 복숭아 한 개를 교환해주기 위해 가게를 나선 손님을 부리나케 따라 나온 가게 주인에 대한 박다정 씨의 이야기는 충실하고 정직한 청렴의 마음이 거래를 통한 호혜 관계를 넘어 진정한 우정에 기반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청렴은 반드시 공직자에게만 국한되는 윤리가 아니다. 청렴은 나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되어 가정 안에서의 교육과 가족 간 신뢰의 바탕이 되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투명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용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맺을까 한다. 홀로 있을 때조차 마음의 터럭까지 살피 삼가는 '신독(慎獨)'의 자세는 우리가 인습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경계하고 戒慎乎其所不睹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해야 한다. 恐懼乎其所不聞  
숨겨진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莫見乎隱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莫顯乎微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는 것을 삼간다. 故君子慎其獨也

- 중용(中庸)